

1-20. 식약용으로 사육되는 *Protaetia*屬 (딱정벌레目: 꽃무지科) 3종의 형태비교

이희안, 김미애, 박해철, 장승중

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곤충자원과

딱정벌레목 꽃무지과에 속하는 *Protaetia*속은 구북구와 동양구에 걸쳐 약 200종이 분포하고 있다. 이들 종의 성충은 *Quercus*속의 수액과 수박, 참외, 사과, 배 등의 과즙액 등을 먹이로 하고, 유충은 *Quercus*속의 썩은 나무, 퇴비나 건조더미, 썩은 낙엽, 초가집의 지붕 등 유기물이 풍부한 부식성 토양 속에서 서식하며, 우리나라에는 6종이 기록되어 있다. 이 중에서 흰점박이꽃무지(*P. brevitarsis seulensis*), 점박이꽃무지(*P. orientalis submarmorea*), 만주점박이꽃무지(*P. mandshuriensis*) 등은 식약용으로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으나, 유충과 성충의 외부 형태가 매우 유사하여, 종을 혼동하거나 농가 사육 시에도 두 종 이상이 섞여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. 따라서 이들 종을 본격적으로 사육,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간의 형태적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*Protaetia* 3종에 대하여 빠르게 종을 확인 할 수 있는 유충과 성충의 형질을 찾고자 하여, 유충은 상인두, 큰턱의 형태, Raster, 전흉측판 등에 나 있는 강모 등의 위치, 수 등의 형질과 성충은 이마방패, 딱지날개 접각의 형태와 위치, 후경절의 형태, 수컷의 복판의 형태 등의 형질을 비교 분석하였다.

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성충에서는 명확한 형질을 유충의 형질에서 종간의 미세 형질의 차이는 확실히 밝힐 수 있었으나, 농가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형질이 부족함으로 향후에는 유충의 형질에 대하여 좀 더 탐색하고자 한다.